



NEWS LETTER

2020년 11월 30일 Vol. 391

동국대학교의료원, BBS 불교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1월 19일 대외홍보 강화 및 의료를 통한 불법홍포를 실천하고자 BBS 불교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BS 불교방송 임직원 및 BBS 불교방송 후원회(만공회) 회원은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모든 의료기관인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경주병원, 경주한의원, 분당한방병원에서 특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그 지역의 불교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진료를 받으려 많이 와주신다”며 “동국대학교의료원이 불자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해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건강관리가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 BBS불교방송과 동국대학교의료원의 협력을 통해 불교계 전반의 건강 복지를 높이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의료기기 안전관리 공로 식약처 표창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제8회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사업기간 동안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고 부작용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권범선 교수는 “의료기기 안전성정보는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발전에서도 소중한 자료로 모니터링 사업은 지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며 “글로벌화 되어가는 의료기기 추세에 맞춰 모니터링도 국제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남희 교수, 비대면 검체 채취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남희 교수는 지난 11월 12일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 개발과 관련해 (주)바이오토크리아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남희 교수가 지난 6월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품 개발 도입과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고위험 바이러스 검체 채취 시 원격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상기도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개발한 로봇 시스템이다. 또한 의료진이 검체 채취 시 카메라 영상을 보며 로봇을 직접 작동할 수 있어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검체 채취 시 검사자 측과 피검사자 측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의 비대면 채취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비대면 검체 채취를 통해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검체 채취 시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의료진의 불편감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성능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사별 가족, 감사한 마음 담은 작품 기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11월 24일 임종 환자 가족이 기증한 사진 작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증은 얼마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은故 조명숙 환자의 가족으로 그동안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돌봐준 호스피스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전달됐다. 기증품은 김용호 사진작가의 작품으로 작품명은 ‘피안’이며, 연임을 주제로 큰 연못에 직접 잠수해 들어가 연못의 연잎들을 촬영한 작품이다.故 조명숙 환자의 가족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기리고자 작품을 기증하게 됐으며, 앞으로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할 환자와 가족에게 마음의 평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상연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장은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말기 생애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센터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